

# 일 병원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강미란\*, 정경숙\*\*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Mi-Ran Kang(63rkdal@cs.ac.kr)\*, Kyeong-Sook Jeong(jksbook@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일 병원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로,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B 광역시 소재 B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는 3.39점, 노인간호실천은 3.21점이었으며,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 임상경력,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여부, 현 근무부서,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노인간호실천 설명력은 30.4%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병원간호사에게 긍정적인 노인돌봄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임상실무에 맞는 노인간호실천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노인돌봄태도 | 노인간호실천 | 간호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attitude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to October 30, 2017 by questionnaires from 228 nurses who work at a general hospital in B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IBM SPSS statistics 2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core of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was 3.39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was 3.21. Significant correlation were found among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geriatric nursing practice were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total clinical careers, elderly education experience influences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present working department, have a friendly elderly person, and these factors explained 30.4%.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improve positive attitude of care for the elderly to hospital nurses and a program to promote the geriatric nursing practice.

■ keyword : | Aged Attitude | Nursing Practice | Nurses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저출산 경향과 맞물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중은 1960년 2.9%에서 2015년 13.1%로 반세기 만에 4.5배 증가하였으며,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전을 보였던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비중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60년 40.1%로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며, 국제적 수준에서 2060년에는 2위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은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10년가량 짧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1].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균 2.6개 종류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3개 종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도 46.2%에 달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갖춘 질적으로 성장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인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3]. 이렇듯 병원을 찾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간호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간호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 및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4]. 이에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5].

노인간호실천이란 노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간호 문제를 파악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실천을 의미한다[6]. 노인간호실천의 목적은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적 차이 뿐 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 정서적 황폐화를 만드는 노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하여 남은 날들을 보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7]. 이와 같이 노인간호실천은 노인에 대한 태도적 변화와 함께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많은 간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질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병치료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

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며[8], 간호실천도를 증진하거나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9]. 즉, 노인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차원 및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넘어 노인에 대해 전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10].

한편, 노인 간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본질인 돌봄, 즉 노인에 대해 어떠한 돌봄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11]. 노인 돌봄태도란 노인 돌봄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노인간호의 수준을 결정짓게 된다[12]. 태도는 행동을 예측하거나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준다. 노인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간호사의 실무영역과 간호의 질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10]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한다고 하였다[13]. 그러므로 노인돌봄태도의 긍정적인 정립을 위해서는 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14].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는 노인간호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긍정적인 돌봄태도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4].

한편, 가족의 형태가 점점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노인과 접촉 기회가 줄어들면서 세대 간의 분리,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15]. 그러나 노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거나 노인간호를 선호하고 노인 가족과의 거주 경험,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16] 노인과 접촉 경험이나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17][18],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으로 공감력, 결혼상태가 확인되었으며[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돌봄태도와 노인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4]. 그러나 급성기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일 뿐 아니라 선행연구[19]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반복연구와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서비스의 필요성, 역할과 기능이 증가되는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노인간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 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 정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 정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이며, 연구대상은 B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를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노인을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해당병원 간호부에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4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표본 수는 최소 194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20%를 고려하여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100%이었으나 12부는 설문지에 자료입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외되어 유효회수율은 95%였다. 최종 분석에 228부를 사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은 확보되었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노인관련 특성 8문항과 하위문항이 없는 노인돌봄태도 17문항, 노인간호실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48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3.1 노인돌봄태도

노인돌봄태도 측정은 Sander,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20]이 개발한 노인의미분별척도와 Maxwell과 Sullivan[21]이 개발한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도구를 기반으로 정혜영, 현혜진[1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96이었으며, 정혜영, 현혜진[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2,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85 이었다.

### 3.2 노인간호실천

노인간호실천 측정은 최희재[6]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사들이 노인을 간호하는데 있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노인간호를 실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하고 있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2 이었다.

### 4. 윤리적 고려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고 연구 종료 후 곧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 정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특성

####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8.1( $\pm$ 6.28)세였으며, 미혼이 81.1%(185명)를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57.0%(130명)가 학사였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55.3%(126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임상경력은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대상자가 28.9%(66명), 61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인 대상자가 20.6%(47명),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인 대상자가 16.7%(38명)로 조사되었다. 현 근무부서는 기타 35.5%(81명), 외과계 26.8%(61명), 내과계 24.1%(5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일반간호사였다.

#### 1.2 대상자의 노인관련 특성

대상자 중 노인간호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7.3%였으며, 63.0%의 대상자들이 정규과목으로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8.4%로 나타났으며, 노인과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있는 경우는 38.2%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89.7%는 친밀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 간호 선호여부에서는 상관없다는 대상자가 58.3%를 차지하였다.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3.3%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특성 (N=228)

개념	범주	빈도(%)
연령 (세)	≤25	105(46.1)
	26-30	67(29.4)
	31-40	44(19.3)
	≥41	12(5.2)
결혼상태	기혼	43(18.9)
	미혼	185(81.1)
최종학력	3년제	51(22.4)
	4년제	130(57.0)
	RN-BSN	35(15.4)
	대학원	12(5.2)
종교	무	126(55.3)
	천주교	61(26.8)
	기독교	15(6.6)
	불교	22(9.6)
	기타	4(1.7)

임상경력 (월)	≤6	19(8.4)
	7-12	24(10.5)
	13-36	66(28.9)
	37-60	38(16.7)
	61-120	47(20.6)
	≥121	34(14.9)
현 근무부서	내과계	55(24.1)
	외과계	61(26.8)
	중환자실	16(7.0)
	응급실	15(6.6)
	기타	81(35.5)
현 직위	일반간호사	208(91.2)
	책임간호사	20(8.8)
노인간호 강의수강 경험	있다	199(87.3)
	없다	29(12.7)
노인 자원봉사 경험	있다	156(68.4)
	없다	72(31.6)
노인과 거주경험	있다	115(50.4)
	없다	113(49.6)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있다	87(38.2)
	없다	141(61.8)
얼마나 친밀한가 (n=87)	매우 친밀하다	22(25.3)
	친밀하다	56(64.4)
	친밀하지 않다	8(9.2)
	전혀 친밀하지 않다	1(1.1)
노인간호 선호	좋다	49(21.5)
	싫다	46(20.2)
	상관없다	133(58.3)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여부	그렇다	191(83.8)
	아니다	37(16.2)

2.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2.1 노인돌봄태도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9±0.31점이였다. 문항 별 노인돌봄태도 정도를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노인을 돌보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였으며, “노인을 돌보는 일을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노인을 돌볼 때 나는 공평하다”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을 돌보는 일이 나는 재미있다”는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2].

표 2. 노인돌봄태도 정도 (N=228)

문항	평균±표준편차	순위
가치있음	3.80±0.56	1
중요함	3.69±0.65	2
공평함	3.63±0.61	3
친절함	3.62±0.55	4

따뜻함	3.50±0.60	5
융통성	3.55±0.60	6
관대함	3.49±0.61	7
아름다움	3.48±0.55	8
책임감	3.46±0.58	9
긍정	3.45±0.60	10
공감	3.43±0.66	11
적극성	3.29±0.62	12
만족감	3.20±0.49	13
편안함	3.05±0.62	14
희망적임	3.05±0.62	14
즐거움	2.94±0.41	16
재미있음	2.90±0.55	17
노인돌봄태도	3.39±0.31	

2.2 노인간호실천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1±0.45점이였다. 문항 별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살펴 보면,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노인과 의사소통 시 분명하고 쉬운 말로 천천히 한다” 이였고, “노인 교육 시 곧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한다”, “노인 교육 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손을 잡아 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지지해 준다”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동작 유지를 위한 재활간호를 시행한다”, “임종 시 인간다운 종업성을 지키면서 임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항목은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3].

표 3. 노인간호실천 정도 (N=228)

문항	평균±표준편차	순위
노인과 의사소통 시 분명하고 쉬운 말로 천천히 한다.	3.59±0.54	1
노인교육 시 곧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한다.	3.53±0.56	2
노인교육 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3.35±0.60	3
노인에게 손을 잡아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지지해준다.	3.30±0.72	4
노인의 주의환경을 정돈해주어 안전관리에 도움을 준다.	3.29±0.58	5
노인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그들의 호소를 경청한다.	3.27±0.60	6
노인의 호소를 진지한 태도로 듣는다.	3.26±0.59	7
노인 간호 시 짧은 대상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3.26±0.70	7
노인교육 시 잘 이해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한다.	3.22±0.65	9
노인에게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15±0.65	10
노인에게 새로운 간호방법을 가르칠 때 질문 할 시간을 준다.	3.11±0.71	11
노인의 건강교육 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3.10±0.64	12

노인교육 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3.05±0.65	13
무의식노인에게도 신체, 심리간호에 최선을 다한다.	3.01±0.77	14
임종 시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임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93±0.88	15
활동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일상생활동작 유지를 위한 재활간호를 시행한다.	2.91±0.72	16
노인간호실천	3.21±0.45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은 연령(F=5.87, p<.001), 임상경력(F=3.38,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41세 이상'군이 '25세 이하'군과 '26-30세'군 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121개월 이상'군이 '37-60개월'군 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다. 또한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 노인간호 선호 정도,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자신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노인간호가 '좋다'군이 '상관없다'군 보다, '상관없다'군이 '싫다'군 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다[표 4].

표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정도 (N=228)

개념	범주	노인간호실천 (M±SD)	t or F (p) scheffe's
연령 (세)	≤25 <sup>a</sup>	3.16±0.46	5.87 (.001) d>a,b
	26-30 <sup>b</sup>	3.14±0.43	
	31-40 <sup>c</sup>	3.31±0.40	
	≥41 <sup>d</sup>	3.65±0.44	
결혼상태	기혼	3.27±0.42	1.02 (.307)
	미혼	3.19±0.46	
최종학력	3년제	3.19±0.40	1.56 (.199)
	4년제	3.21±0.48	
	RN-BSN	3.15±0.41	
	대학원	3.47±0.36	
종교	무	3.21±0.46	0.24 (.914)
	천주교	3.20±0.43	
	기독교	3.27±0.43	
	불교	3.23±0.53	
	기타	3.03±0.21	
임상경력 (월)	≤6 <sup>a</sup>	3.38±0.41	3.38 (.006) f>d
	7-12 <sup>b</sup>	3.21±0.40	
	13-36 <sup>c</sup>	3.14±0.48	
	37-60 <sup>d</sup>	3.07±0.35	
	61-120 <sup>e</sup>	3.19±0.51	
	≥121 <sup>f</sup>	3.43±0.39	

현 근무부서	내과계	3.29±0.29	2.48 (.045)
	외과계	3.30±0.36	
	중환자실	3.20±0.47	
	응급실	3.03±0.52	
	기타	3.12±0.52	
현 직위	일반간호사	3.20±0.45	-0.76 (.451)
	책임간호사	3.28±0.47	
노인간호 강의수강 경험	있다	3.23±0.43	1.68 (.095)
	없다	3.08±0.55	
노인 자원봉사 경험	있다	3.22±0.45	0.73 (.467)
	없다	3.18±0.46	
노인과 거주경험	있다	3.26±0.42	1.17 (.083)
	없다	3.16±0.48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있다	3.34±0.48	3.46 (.001)
	없다	3.13±0.41	
얼마나 친밀한가 (n=87)	매우 친밀하다	3.40±0.57	0.75 (.528)
	친밀하다	3.30±0.43	
	친밀하지 않다	3.30±0.59	
	전혀 친밀하지 않다	3.94±0.00	
노인간호 선호	좋다 <sup>a</sup>	3.37±0.51	10.57 (<.001) a>c>b
	싫다 <sup>b</sup>	2.97±0.41	
	상관없다 <sup>c</sup>	3.23±0.41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여부	그렇다	3.25±0.45	3.18 (.002)
	아니다	3.00±0.40	

### 4.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515, p<.001)[표 5].

표 5.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의 상관관계 (N=228)

	노인간호실천 (ρ)
노인돌봄태도	.515 (<.001)

### 5. 일 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돌봄태도와 대상자의 특성 중 노인간호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 노인간호 선호 유무,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여부를 더미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4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돌봄태도, 임상경력,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여부, 현 근무부서,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가 노인간호실천을 3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0.85, p<.001)[표 6].

표 6. 일 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28)

	B	SE	$\beta$	t	p	Dubin Watson
(상수)	1.30	.34		3.82	<.001	1.84
노인돌봄태도	0.67	.08	.46	7.91	<.001	
임상경력+	-.14	.07	-.11	-2.01	.046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여부+	-.15	.07	-.13	-2.23	.026	
현 근무부서+	.13	.06	.13	2.24	.026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11	.05	-.12	-2.08	.039	
Adjusted R <sup>2</sup> =.304, F=20.85, p<.001						

+ 더미변수(임상경력(월): ≤6,7-12,13-36,61-120, ≥121=0, 37-60=1; 노인관련교육경험이 노인에 대한태도에 대한 영향여부: 그렇다=0, 아니다=1; 내과, 중환자실, 응급실, 기타=0, 외과=1;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있다=0, 없다=1)

#### IV. 논의

본 연구는 평균 연령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노인간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 정도는 3.39±0.31점으로 중간이상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18] 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비교해보면, “노인을 돌보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노인을 돌보는 일을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노인을 돌볼 때 나는 공평하다” 문항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노인을 돌보는 일이 나는 재미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이 나는 즐겁다”, “노인을 돌볼 때 나는 편안하다”, “노인을 돌보는 일이 나에게 희망적이다”는 문항은 노인돌봄 정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근무지가 급성기 병원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 시 될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자의 46%가 25세 이하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노인과 만날 기회가 부족하고 핵가족 환경에서 주로 살아온 젊은 세대들이다. 이렇듯 세대 간의 분리 및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인하여[15] 젊은 간호사들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아픈 노인을 돌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질병을 중심으로 치료와 간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처럼 노인을 돌보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점[18]과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간호의 주요 대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기 위하여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고, 건강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직·간접적인 노인간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22]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이해함으로써 노인돌봄을 재미있고 즐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인유사체험과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12][14]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3.21±0.45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19]와는 비슷하였으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18]의 연구결과 3.63±4.92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문항 별로 비교해보면,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노인과 의사소통 시 분명하고 쉬운 말로 친절히 한다”이며 “노인 교육 시 곧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한다”, “노인 교육 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는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자기주장과 고집이 강해 때로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3], 본 연구 대상자들도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간호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도 “활동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동작 유지를 위한 재활간호를 시행 한다” 문항이 가장 낮게 조사되어 여러 선행연구 결과[16-18]와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현장에서 재활간호를 포함한 신체적 간호제공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러나 “임종 시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임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문항에 대한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54.7%였던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이 2014년 71.6%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24]. 간호사는 대상자가 죽음의 의미를 추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25]. 2018년 2월부터 연명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급성기 병원에서도 임종 시 간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마지막 생의 단계에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연령,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 노인간호 선호 정도,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16-18][26]와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임상경력의 경우 ‘37-60개월’군이 ‘121개월 이상’군 보다 유의하게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입사 2년 후에는 소진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이다[27]. 그러나 업무처리가 유연해지고 인식력의 폭이 넓어져 이전 단계에 비해

뚜렷하게 질적으로 향상되는 유능한 단계[28]인 이 시기 간호사의 장점을 증대시켜 노인간호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대상자 특성과 노인간호실천과의 관련성 확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16] 연구결과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18] 연구결과 및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4]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생 시기부터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경험이나 노인 돌봄 경험을 통하여 노인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 염려 등의 공감적 관심을 높여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29] 노인돌봄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시기의 긍정적 영향들이 간호사가 되어 노인환자 간호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과 병원이 함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한 결과 노인돌봄태도, 임상경력,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 현 근무부서,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로 나타났으며, 이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은 총 30.4%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간호실천에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요인은 노인돌봄태도( $\beta=0.67$ )로 확인되었다. 이는 급성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돌봄태도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간호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4]. 그러나 요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노인돌봄태도가 노인간호실천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간호실천은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며[6] 노인 간호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상경력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8][26]에서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의 연륜과 임상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연령이 낮고 임상경험이 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으로 임상경력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있는 경우가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 시기 뿐 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호사가 되어서도 노인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교육하여 적극적이고 질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현 근무부서의 경우 외과계 간호사가 내과계 간호사보다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으로 근무부서를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과계 간호사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던 연구결과[16]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이를 재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노인돌봄태도는 중간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파악되었으며, 노인간호실천도 다소 높게 파악되었다. 또한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 임상경력,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

현 근무부서,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이며, 이 영향요인은 노인간호실천을 총 30.4%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급성기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을 찾은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에게 다양한 노인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병동이동을 고려한다면 노인간호실천을 더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급성기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반복 연구와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학생들에게 건강한 노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노인간호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들의 임상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노인간호실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확인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으로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로 나타났으므로, 노인 이해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주현,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개발원, pp.43-51, 2015.
- [2] 오영희, “노인의 건강상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포럼, 제223호, pp.29-39, 2015.
- [3] 서혜경, *종합병원 의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4] 권수혜, 강효정, 윤순철, 김영숙,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4호, pp.303-314, 2016.
- [5] 박경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태도,” 인제논총, 제16권, 제1호, pp.207-230, 2001.

- [6] 최희자,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7] 조유향, *노인간호*, 현문사, 2009.
- [8] 정혜선, 한성열, “노인간호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4권, 제3호, pp.1453-1466, 2012.
- [9] M. Bourbonniere and N. E. Strumpf, “Enhancing geriatric nursing competencies for RNs in nursing homes,”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Vol.1, No.3, pp.171-175, 2008.
- [10] 오현수, 정혜선, “노인간호 교육과 노인유사체험으로 구성된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1654-1664, 2012.
- [11] 이경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 간호 교육 요구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2] 김영옥, *노인유사체험이 임상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돌봄태도에 미치는 효과*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3] M. Courtney, S. Tong, and A. Walsh,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 of Nursing Practice*, Vol.6, pp.62-69, 2000.
- [14] 정혜영, 현혜진,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노인돌봄태도, 노인에 대한 이해도, 업무만족도 및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pp.222-230, 2012.
- [15] 강인, “노인유사체험이 노인과 체험자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19권, pp.7-30, 2003.
- [16] 김연수,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7] 구미연, *임상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의 관계*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8] 김영경, 권수혜, “요양병원간호사의 공감력과 노인돌봄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203-213, 2017.
- [19] 이세정,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 및 간호실천 관련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0] G. F. Sander, Montgomery, J. E. Pittman, and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59-70, 1984.
- [21] A. J. Maxwell and N. Sullivan,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28, No.8, pp.341-345, 1980.
- [22] 이민숙, 양소남,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8호, pp.265-273, 2012.
- [23] 박소은, 염은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역할갈등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365-381, 2016.
- [24] 통계청, 2014 Elderly statistic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4. Available from: [http://Kopus/ups\\_01List01.jsp?grp\\_no=1005&pubcode=KO&type=F](http://Kopus/ups_01List01.jsp?grp_no=1005&pu bcode=KO&type=F), cited 2016.4.22.
- [25] 강성례, 이병숙, “임상간호사의 입중환자 간호체험,” *간호행정학회지*, 제7권, 제2호, pp.237-251, 2001.
- [26] 권윤희, 이화연, 황승숙, “노인전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실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5785-5791, 2013.
- [27] 박승미, 장인순, 최정실, “2차 종합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성격 특성과 업무특성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4호, pp.474-483, 2011.
- [28] 장금성,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29] 김정희, 정혜선, “노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40-850, 2013.

저 자 소 개

강 미 란(Mi-Ran Ka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조현병 환자 및 가족 간호, 지역사회 정신간호

정 경 숙 (Kyeong-Sook 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종양, 유방암 생존자, 건강증진행위